

연중 제13주일
(교황 주일)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기도서 P. 382 C해
제1독서(열왕전 19, 16, 19-21)
제2독서(갈 라 4, 3-15, 13-18)
복 음(루 까 9, 51-62)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

서 용 복 신부

오늘은 성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며 또한 오늘은 우리 가톨릭교회의 최상 통치자 로마 교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황께 대한 우리 신자들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교황주일이다. 교황의 직책상의 이름은 대개 아래와 같다.

1. 요한 바오로 2세 로마주교
2.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3. 성베드로의 후계자
4. 전세계 교회의 최고수상
5. 서방교회의 우두머리
6. 이탈리아의 수좌 대주교
7. 로마 대교구 대주교
8. 바티칸 공국의 군주
9. 하느님의 종중의 종

가톨릭이 가톨릭다운 특징중의 가장 뚜렷한 것이 있다면 교황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교파와 뚜렷한 구별이 바로 가톨릭의 교황제도라 하겠다.

오늘 복음성서의 말씀과 같이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하셨다. (마태오 16장 18절-19절)

이와같이 우리 교회는 설립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베드로 사도위에 세워졌고, 온 성교회를 다스리고 또 맺고 푸는 최고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우리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모시고 있다. 우리는 신앙과 윤리에 관한 교황의 선언은 성령의 감도로 그르칠 수 없는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타 교파에서는 이와같은 진리의 보장이 없다.

오늘의 개신교파가 수백여파에 달했다는 역사적 결론은 바로 베드로의 교권을 떠난 결과라 하겠다. 요사이 우리 주변에는 사이비 종교가 여기 저기서 튀어나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때일수록 우리 가톨릭 교황제도의 고마움을 또 한번 절감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적 교리에 충실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의 감도를 받으면서 전세계 양떼를 돌보시는 최고 목자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확인해야 하겠다. "모든 믿는 자들의 목자시오, 임금이신 친주여, 주의 일꾼 요한 바오로를 성교회의 최고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를 인자로우이 굶어보시어 그로 하여금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확실히 보살피게 하소서. 우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남원천주교회 주임신부)

□ 특 보 □

박창신 신부 25일 밤 피한에게 피습

2~3분동안 집단구타 후

"일단 후퇴" 군호에 맞춰 도주

6.25남침 30주년의 밤 11시 10분경, 정체불명의 피한 4명은 여산 본당 사제관에서 본당 주임인 박신부와 임모이세(25세)에게 50cm가량의 쇠파이프를 휘둘러댔다. 2~3분 사이에 저질러진 이 폭행으로 박신부는 다섯 군데에 자상(刺傷), 칼같은 날카로운 기물에 찢린 상처(을) 입고(10바늘 꿰뚫) 둔부와 팔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임군도 어깨와 등, 팔과 허벅지 등에 타박상을 입고, 등에도 자상의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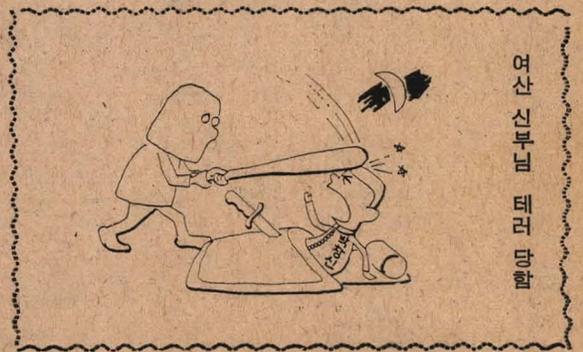
박신부는 25일 오후 8시30분, 금마공소의 미사를 집전하고 9시50분차로 여산에 돌아왔다. 10시 20분경에 사제관에 도착한 박신부와 임군 등은 담소를 하고 있던중 11시 10분경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중에서 내려간 임군이 현관문의 빗장을 벗기고 20cm가량 문을 열자마자 그들은 왈칵 밀어 닥쳤다. 피한중의 하나가 임군을 상대로, 셋은 박신부를 상대로 파이프를 휘둘러댔다.

함께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의 머리는 짧고 깎은 스포츠형이고 얼굴에는 모래흙을 바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흙색의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은 이들은 파란색에 흰 줄이 있는 축구화를 신었다. (젓은 땅에 남아 있는 발자국과 일치)

피한들은 잠깐동안의 폭행을 저지르는 동안 박신부와 임군의 머리에는 상처를 내지 않았고, 자상의 깊이도 깊게 내지 않았으며, 함께 있던 다시안나에게는 전혀 폭행을 하지 않은 점이 특이하다. 폭행을 끝낸 이들은 "일단 후퇴"라는 우렁찬 소리를 신호로 달아났다. 여산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박신부는 26일 대학병원으로 옮겨오나 중태는 아니다.

79년 2월부터 여산본당에서 사목하는 박(朴)창신, 베드로) 신부는 가톨릭 농민회 전주교구 지도신부를 75년9월부터 지금까지 겸하고 있다.

숲 정이 산채



여산 신부님 테러 당함

□ 시국 담화문

6·25동란 30주년을 맞이하여

동족상잔의 처참한 비극이요, 아울러 이 땅의 공산화의 위험이 가장 컸던 6·25동란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이 다시금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과 아울러 대한민국은 반드시 공산침략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참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인간존엄성과 그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깃발된다면 이 땅에는 지킬 가치가 없어집니다. 국기가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인간이 정치나 경제의 도구로 타락하고, 자유를 상실하며, 진리와 정의의 빛을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진정 어디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오늘날 다시금 이 땅에서 이 같은 가치정립을 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작년 10·26사건 이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깊은 애국심과 높은 질서의식으로서 10·26사건과 같은 엄청난 충격도, 12·12사건과 같은 새로운 충격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애국심과 질서의식은 그동안 있었던 빈번한 노사분규와 사복사태 또는 학원소요사태의 와중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태는 불행히도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는 학생소요사태가 격화됨에 따라서 당국은 대화로써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결국 힘으로써 이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함께 정치활동금지, 대학의 휴교, 언론통제강화, 민주인사 및 학생들의 연행과 구금 등의 강경조치가 취해지면서 급기야 광주사태와 같은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은 다시금 깊은 침묵과 내일을 내다보기 힘든 어두움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짙어졌으며, 집단과 집단 사이에는 대립과 분열, 미움과 단절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 핏줄이요, 한 겨례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까지 서로를 불신하고 갈라서야만 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극적인 변화와 아울러, 우리 모두 이해와 관용,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질 때에만 이 겨례와 이 땅을 어두움에서 구출할 수 있고, 지금 깨어진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에 저는 현 시국을 감안하여, 정부당국, 또는 저 자신을 포함한 기성세대, 모든 지도층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에게 저의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1. 광주사태는 통탄과 통분을 금치 못할 사실이었음에 비추어, 광주시민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실

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에 의한 외형적 해결은 장차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2. 우리 기성세대, 특히 정부는 오늘 젊은세대, 그 가운데서도 근로자들과 학생들의 순수한 염원을 수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일 젊은세대가 지닌 진리와 사회정의 및 인간다운 참된 민주사회건설의 염원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이 땅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고, 궁극에는 그로 말미암아 사회안정을 오히려 잃게 되고 반공사상을 둔화시키며 안보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특히 학생들은 좌절하고, 이 사회 안에 설 땅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잃으면 민족이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들 기성세대는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하며, 이 땅에 참으로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인간존엄성과 그 자유가 존중되며, 정의가 실천됨으로 누구도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소외되는 일이 없을 때에 가능합니다. 진정 젊은이들이 공포에 떨고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정부는 학원과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고 명랑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학원자율화와 아울러 언론의 활성화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의 바탕입니다. 언론자유없이 다른 어떤 자유도 올바르게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건전한 자유를 누릴 때, 지금 갈라진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로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를 불신케 하는 유언비어 퇴치도 언론이 그 자유를 보장받고 알릴 것이 진실되게 알릴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4. 이와 아울러 학원과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자유롭고 명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인이나 종교인, 지식인, 학생들이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앞장서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구금되고 엄히 문책되는 일은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 성취이상도 이하고 아니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구정권하에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나 이 땅에서는 민주인사이면 흔히 위협시되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용공시 되어 계속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혹시 그들의 주장과 표현이 좀 과격했다면 이를 대화를 통해서, 또는 정치적 차원에서 수정하도록 해야 마

(3면에 계속)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⑤ 5669 번
주최 남 수(아빨로니오)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McGREGOR Weekend

맥그리거 위크엔드

성인·아동용 의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⑤ 4451 유율리안나

(2면에서 계속)

땅하며, 결코 힘의 강압으로 국기문난이란 중한 죄목을 씌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인사들이 전부, 아니면 무라후 흑백논리를 폈다고 비난한다면, 다시 그 비난 속에는 새로운 흑백논리가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을 엄하게 문책하면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지극히 어렵게 만드는 반민주적 요인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요인은 국논과 국민을 분열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의 공산집단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야지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합니다. 후퇴는 국민의 애국심과 정신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요, 국력을 쇠퇴시키는 어리석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의 공산침략에 대한 안보자책을 위태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질서속에 정치발전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 안에서만 참된 의미의 질서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민주적 정치발전이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개헌작업에서나 정부형태에 있어서 안보를 빙자하여 반민주적 요소가 끼여든다면 이는 이 나라의 안보자책을 위해서도 대단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헌법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므로 공동선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민주헌정 확립의 바탕위에 비로소 우리는 국민적 화합과 단결을 이룩할 수 있고, 의롭고 빛나는 자유대환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땅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6. 지금 우리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을 미워하고 배척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겨레요, 한 핏줄입니다. 흥해도 같이 흥하고, 망해도 같이 망할 공생공존해야 할 동족입니다.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은 물질주의요, 무신론적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부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는 미워하되, 인간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인간이요, 우리 중에 죄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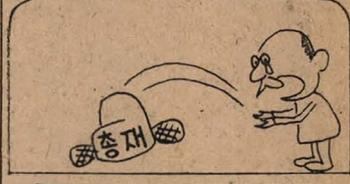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참된 가치는 재물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참된 가치는 국민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인간답게, 또한 기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사회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자유와 정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인간다운 나라를 건설하고 지키기 위해서 안보가 필요합니다. 정부도, 군도, 국민도 이 점에 있어서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 위에 우리는 국논을 통일시킬 수 있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단결된 힘으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980년 6월 25일 추기경 김 수 환

◆ 오늘은 교황주일

항상 우리와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 애쓰시는 그리스도의 지상(地上) 대리자이신 교황 성하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강과, 진리와 용기의 성신의 바른 감도(感導) 하심을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교단과 사제들을 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요심이 (360) 김병오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2176

※ 전주역 앞

범모약국

전화 3-5319

김영춘(아오스당)

전축용페인트, 기외용락카, 카-슈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당)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 정화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원동 구역전 앞

최윤경(유리안나)

전화: ㉠ 8653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작곡 시계)

주 이찰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 8188 (자 ㉠0369)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수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제공예

주 이현수(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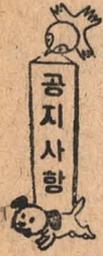
문화양행

오중원(아오스당)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광주교구 6분 신부님 계속 연행

김성용·조철현·이영수·장지권·정규완·남재희 신부님이 차례로 연행돼 교구 사목에 커다란 충격을 끼치고 있다. 보다 큰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광주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마다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1. 신부·수녀 성서 신학세미나 개최...7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5시, 가톨릭 센터에서 주제-성서와 크리스찬 영성, 강사-박상래 신부(가톨릭대학 성서 신학교수), 서인석 신부(서강대 성서 신학교수), 대상-전주교구 신부·수녀 및 전구 사제, 참가비-1인당 5,000원
 2. 가톨릭 전주교구 대학생 연합미사...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전주 노송동 성당 ※ 컷미사-7월 1일, 광주사태로 인해 희생된 민주시민 학생들을 위하여...
 3. 제 3지구 학생회 임시총회...6월 29일 오후 2시, 주현동 천주교회에서 ※ 각 분당 임원은 참석바랍니다
- 이재우·김희남 신부 영명축일 축하미사 및 축하식...6월 30일<월> 오전 11시 많은 기도와 참석 바랍니다
 - 서용복(토마스) 신부님 영명축일(7월 3일) 축하연 없습니다
 - 이종원(토마스) 신부님 영명축일(7월 3일) 축하연 없습니다. (6월 29일에 축하미사)

(중양)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김병구

1. 영세식: 7월 5일 오후 7시 30분 중합교리-30일~7월 2일 오전 10시까지, 오후 8시 찰고시 사도회장, 구역장, 반장님께서는 입장 지참하시어 3일·4일 꼭 참석하여 영세자 확인해 주세요
 2. 특별강의: 문화사적으로 본 김대건 신부 7월 2일 <수> 오후 8시 성당 예수는 우리의 희망(신약에서 본 교회사의 한 단면) 7월 9일 <수> 오후 8시 성당 예수의 최후 만찬과 교회의 만찬례 7월 16일 <수> 오후 8시 성당
 3.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7월 6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 임원, 고문, 구역장, 반장, 신심단체장
 4. 인성회: 7월 7일<월> 오후 7시 30분
 5. 주일학교: <토> 3시 교리와 미사에 꼭 보내 주세요
 6. 대학생회: 매주 <목> 7월 3일 오후 6시(성경연구) 본당내 모든 지도자, 대학생들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7. 사랑의 손길: 순창 탁발래나 할머니 돕기 성금 서울 돈암동 유 벨루아-5,000원 본당 인후동 임명-5,000원
- 지난주 봉헌금: 361,436원

2. 오늘은 교황주일: 교황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헌금 있음)
 3. 첫 칠레 7: 7월 5일<토> 저녁 8시 복자 김대건 사제 순교자 축일
 4.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지도-장동주 선생님
 5. 중·고 학생미사: 매 주일 오전 9시, 꼭 나오세요
 6. 주일학교: 매 주일 오후 2시, 어린이들 꼭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294,5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사도회: 공식미사 후(사무실)
 2. 울프레아: 7월 1일(화) 저녁 8시 30분
 3. 성당내 선종기 기증을 받습니다: (15대) 김남준-5대, 김장미-1대, 본당 신부-2대, 김한기-1대, 계: 9대
 4. 여아세례: 매월 첫째주일 공식미사전(사무실 접수)
 5. 특별헌금 십일분: 6월말까지 완결합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복서-차상열·김한기, 신자들의 기도-김 메테사
- 지난주 봉헌금: 140,270원 교무금: 83,000원

(술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광노

1. 축! 분당신부님 영명 축하식: 오늘 공식미사후
 2. 부녀회 월례회: 7월 5일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3. 사도회 월례회: 7월 6일
 4.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5. 성령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6. 신축기금 내주신 분 이상용(30만원), 이종욱(10만원), 양해방·이계신(각 1만원), 강은홍(5만원), 정공순(5천원), 이미카엘라(2천원), 중앙성당 신임액중 강수남의 1인(1만 5천원), 익명(10만원)
 7. 청년회합시다 변경: 오후 7시30분-8시로 변경
- 지난주 봉헌금: 224,04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1. 축! 영명: 분당 신부님, 축하식-공식미사 후
 2. 글라라 형제회: 오후 2시
 3. 학생회 임원 월례회: 오후 4시 30분 임원들 꼭 참석 요망
 4. 술정미 공개 셀: 오후 2시
 5. 성 가정회: 7월 1일 12시 장소-사제관 2층, 강사-김준호 신부님
- 지난주 봉헌금: 387,15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협

1. 영세식: 오늘 오후 1시 30분, 꼭 대부 대모님 참석을...
 2. 부녀회 월례회: 오늘 있습니다
 3.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1인 1회합 참가하여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 지난주봉헌금: 96,460원 어린이 헌금: 1,640원 교무금: 286,00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준근 사도 회장 박춘근

1. 축! 분당 신부님 영명: 7월 3일, 분당 신부님의 잔곡한 부탁 말씀에 축하 행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2. 중·고등 학생회 성서교육: 매주 <토> 5시~6시 까지(나 신부님 지도)
 3. 사도회·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제 7차 성령 세미나 개최: 7월 14일~19일까지
 5. 인후 아파트 구역 특전미사: 매주 <토> 오후 8시, 삼용 목욕탕 2층에서
 6. 레지오 마리에와 성서기도: 매주 <목> 오후 8시부터
 7.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역대기 하편 전체
 8. 성서 강의: 매주(월·화) 오후 8시~9시 까지
 9. 인후 아파트 구역 레지오 마리에: 매주 <목> 오후 2시에 17동 104호에서 합
 10.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209,215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조점오 사도 회장 양상열

1. 축! 영명축일: 오늘 분당신부님의 전장을 위하여...
 2. 주일학교에 어린이 많이 보내주세요: 교리는 토요일 3시, 미사 4시
 3. 주일학교 교사 단합대회: 7월 3일 1박2일, 뜻있는 분 참석 바랍니다
 4. 각 단체장님들의 모임: 오늘 미사후 L.M, J.O.C, 반석회, 진복회, 학생회
- 지난주 봉헌금: 257,430원

(북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